

# 전력도매가 4년 만에 최저…한전, 재무 정상화 속도

지난해 연 평균 kWh 당 112.72원…천연가스·원유 가격 하락 영향  
한전, 연속 흑자에도 재무위기…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는 없을 듯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전력 생산자로부터 전기를 구매하는 비용인 전력도매가격(SMP)이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SMP가 폭등을 불러온 러-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가격으로 회복됨에 따라 한전의 재무위기 탈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6일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SMP는 연 평균 kWh 당 112.72원을 기록했다. SMP는 2022년 러-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전년(94.34원) 대비 2.1배 상승한 kWh 당 196.65원까지 치솟았다.

SMP는 이후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2023년 167.11원, 2024년 128.39원 등 하락 추세를 보였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 트럼프 대통령의 러-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협상 등으로 급락해 11월(94.81원), 12월(90.44원) 등 100원 이하로 떨어지며 정상화되는 듯 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중동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SMP를 소폭 끌어올렸다.

최근 들어서는 국제유가 영향으로 SMP도 100원선에서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3분기 LNG 가격은 MM BTU(영국 100만 가스 열량 단위·25만kcal 가스량) 당 101만 3200원으로 전년(134.4달러·114만 1400원) 대비 각각 21.9%, 11.2% 내렸다.

전력 생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천연가스 원자재 외 국제원유 가격 역시 지난해 6~7월 이후 3분기와 4분기 내내 하락하고 있다.

이 같은 SMP의 하락세에 따라 한전의 영업이익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지난해 한전의 연간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77.2% 오른 14조 8242억원, 당기순이익도 148.6% 상승한 9조 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산업계에선 SMP 인하에 따라 그동안 연이어 오른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고물가가 장

기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민생안정을 위해 주택용·일반용 전기요금 대신 산업용 전기요금을 수차례 인상한 바 있다. 원자재 값이 폭등했던 3년동안 한전이 떠안은 45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누적적자 부담을 탈기 위한 조치였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 기준 SMP는 kWh 당 94.81원이었던 반면 한전이 기업에게 판매한 산업용 전기요금은 kWh당 179.23원을 기록했다.

도매가의 2배 가까운 전기 가격에 반발한 기업들의 ‘탈한전’ 움직임도 뚜렷해지고 있다. 지난해에만 높은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에 전력 직접구매 제도를 도입한 기업만 20곳에 이른다.

하지만 한전의 재무 정상화를 위해 당분간 전기요금 인하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누적적자 규모를 줄여가고 있지만, ‘에너지 고숙도로’ 등 대규모 국가 전력망 확충 사업 등 매년 막대한 자금 지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김동철 한전 사장은 최근 신년사에서 “최근 상황이 일부 개선됐지만, 누적 적자와 매년 전력망 확충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해야 하는 등 연간 부족한 자금이 20조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지난해 홍문표 aT 사장이 여름배추 밭을 방문해 포전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aT 제공〉

## aT, 식량 기후위기 관리 ‘기후변화대응처’ 신설

### 농산물 수급 전 과정 체계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이달부터 기존 ‘기후변화대응부’를 ‘기후변화대응처’로 격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은 폭염·폭우 등 이상기상과 급격한 기후 변화에 따른 농산물 수급 불균형 및 가격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기후변화대응처는 정원 28명 규모로 구성된다.

앞서 aT는 지난해에도 대규모 배추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해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하고, 신품종 준고

랭지 여름배추 시범재배, 여름배추 김치가공 실증, CA 저장고를 활용한 봄배추 장기저장 등 기후 변화 대응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조직 개편 역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전담 사업조직의 전문성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후변화대응처는 정원 28명 규모로 구성된다.

문인철 aT 수급이사는 “기후변화대응처 출범으로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수급 사업을 보다 집중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며 “연구 단계부터 생산, 유통, 소비까지 이어지는 농산물 수급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체계화해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 한전KDN, 에너지AI 추진전략 수립…AI 대전환 나선다

### AI 전략위원회 설치 등 추진

한전KDN이 국정과제로 선정된 인공지능(AI) 대전환 전략을 세우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한전KDN은 6일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로 선정된 ‘AI 3대 강국 도약’ 및 ‘AI·에너지 고숙도로 건설’에 기여하고, 실질적 공공·에너지 분야 AI 전환을 이행하기 위한 ‘2030 에너지AI 추진전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2030 에너지AI 추진 전략은 에너지AI 구현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 구축, AI 전담 조직·인력 정비, 에너지AI 특화 서비스 발굴, 사업전반의 AI 거버넌스 구축 등 네 분야로 추진 방향이 설정됐다.

한전KDN은 이를 통해 대규모 전력·에너지 산업 특화형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나주에 이어 서울·광주 등 주요 지역에 설치되는 엣지 데이터센터와 서남해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대규모 데이터센터 구축을 병행 추진한다. 더불어 다

중 보안 구조를 도입해 안정성을 높이는 상호 DR(재해복구) 체계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최신 GPU(B200) 도입을 통해 고성능 AI 컴퓨팅 환경을 확보해 데이터 중심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 에너지 분야 ‘소버린 AI(국가 자체 AI 인프라 구축)’ 환경 구현으로 국가 보안 기준에 맞는 커뮤니티 클라우드 보안체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한전KDN은 에너지AI 추진을 위해 CEO(최고경영자) 직속으로 컨트롤 타워 기능을 도맡을 ‘AI 전략위원회’ 설치하며, 전사 총괄조직으로 ‘AX국정과제추진TF’를 ‘AX국정과제추진부’로 격상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AI 사업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으로 ‘AX 사업처’를 신설해 AI 사업기획·기술 개발·인프라 구축·데이터 관리 등 에너지AI 전주기 사업역량을 체계화한다.

에너지AI 전문 인력 양성 및 전 직원 대상 단계별 AI 교육을 통한 조직 전반의 AI 역량 강화를

위해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단계별 맞춤형 교육제도도 구축·운영한다.

한전KDN의 운영을 담당하는 핵심 서비스에도 AI를 확대 적용하기 위해 ‘AI 기반 지능형 배전설계 시스템’, ‘생성형 AI 보안관제’, ‘안전·보안 분야 Physical AI’ 적용을 추진한다.

또 신사업 분야에서도 석탄과 LNG 등 가격 예측 서비스, 해상운송 등 탄소배출 및 공급망 분석 플랫폼,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IDPP) 해외 사업화 등을 통해 AI 관련 매출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한전KDN 관계자는 “이번에 수립한 AI 추진 전략은 국가 AI 정책의 핵심 이행 기관으로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각오를 담고 있다”며 “인공지능 전환에 기반한 에너지 분야 디지털 대전환을 실질적으로 선도하기 위한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통합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 민·관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한국전력거래소, 1월 1~2주 전력 공급 이상 무

### 수요량 79.5~80.0GW 기록

새해 첫 날부터 맹추위로 난방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지만, 전력 수급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6일 한국전력거래소가 발표한 ‘전력 수급 실적 및 전망’에 따르면 1월 1주차 전력 수요량은 79.5

~80.0GW(기가와트)를 기록했다.

일자별로는 지난 2일에 80.0GW를 기록해 전력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초부터 많은 눈이 내리고,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한파 특보가 발효된 데 따라 난방 사용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주차 예비력은 21.7~24.9GW를 기록했고, 예

비율은 27.2~34.1%로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이뤄졌다. 1월 2주차(1월 5~9일) 전력 수요는 81.2~83.1GW로 전망됐다. 예비력 17.1~18.4GW, 예비율 20.6~22.3%로 전력 공급은 안정적인 것이라는 게 전력거래소의 설명이다.

한국전력거래소 관계자는 “강추위로 인한 난방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력 수요량도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전력 공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농어촌공사,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2년 연속 ‘최우수’

한국농어촌공사(공사)는 “최근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주관한 ‘2025년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심사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제도는 행안부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과 관리체계 전반을 심사해 우수기관을 인증하는 것으로 관리체계, 데이터값, 개방활용 등 3개 영역에서 13개 항목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이뤄진다.

공사는 이번 심사에서 데이터 품질 개선, 특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대폭 개선했다는 점에서 호평받았다. 공사는 이를 위해 데이터 관리 전담 조직인 ‘데이터정책부’를 신설했고, 관리지침을 제정해 체계적 품질관리를 위한 기반을

다졌다. 더불어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한편 ‘공공데이터 개방 수요조사’를 실시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데이터 발굴·개방에 힘을 쏟았다.

데이터를 활용한 기관 간 협업 성과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사는 ‘농지공간포털’에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 정보와 농촌진흥청의 토양 정보를 통합 제공해, 다양한 농지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2년 연속 최우수 등급 획득은 데이터 품질과 고객 편의 향상을 위해 전 직원이 고민하고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해, 인공지능과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대표전화. 970-6000

첨단우리병원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겨울철 일등보양식

청자골 자라양식장 창업 20주년 특별할인

고단백, 면역력 최고!

자라 엑기스 2개월분

① (12kg + 한약재)

② (12kg + 마늘 생강 대추)

70만원 → 60만원 (10만원 할인)

자라 요리 전문(단체모임환영)

자라탕 용봉탕 / 방생자라 판매

청자골 자라 양식장 | 061-434-0067 / 010-3635-3362

강진군 성전면 별미로 297-52